



보도일시	2026 년 8 월 20 일(목)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기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취재문의	박종길 연구소장 010-9166-4667 contact@nexusfmi.com
관련 사이트	넥서스 금융 브리핑 https://nexusfmi.com/

NEXUS FINANCE BRIEFING · LAUNCH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국민 금융지식 플랫폼 『넥서스 금융 브리핑』 창간

금융상품에서 피해구제까지, 국민이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의 길을 잇다

핵심 내용

- 계약 전에는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문제가 생긴 뒤에는 대응 순서와 기한을 찾도록 설계
- 회원가입 없이 무료 공개해 국민·학교·군·금융회사·소비자단체의 금융교육과 상담에 활용
- 33 년 금융감독 현장 경험과 공개된 편집·정정 원칙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익 지식 축적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피해가 발생한 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한곳에서 찾을 수 있는 국민 금융지식 플랫폼이 문을 열었다.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박종길)는 20 일 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돕는 지식 플랫폼 '넥서스 금융 브리핑(nexusfmi.com)'을 창간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금융상품·금융사건·금융제도·피해구제를 서로 연결해, 국민이 계약 전에는 위험을 이해하고 문제가 생긴 뒤에는 대응 절차와 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보는 많지만, 결정해야 할 순간에는 흩어져 있었다

오늘의 금융소비자는 정보 부족보다 정보의 단절을 더 자주 마주한다. 상품 설명은 판매 현장에, 사고의 기록은 제재 결과와 판결문에, 제도의 근거는 법령과 기관 자료에, 피해구제 절차는 여러 기관의 안내에 흩어져 있다. 국민은 이 조각들을 스스로 찾아 연결한 뒤에야 '가입해도 되는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었다.

금융생활의 중요한 순간에는 지식의 양보다 순서가 필요하다. 가입 전에는 계약의 성격과 돈의 흐름, 비용과 손실 가능성을 살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증거를 보존하고 신고·신청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넥서스 금융 브리핑은 바로 이 순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상품·사건·제도·구제를 하나의 길로 연결

플랫폼의 핵심은 콘텐츠의 양보다 연결 구조다. 금융상품에서 생긴 질문을 실제 사건의 교훈과 제도의 근거로 이어 주고, 마지막에는 피해구제의 행동 순서까지 안내한다.

금융상품 설명에서는 현재 금리나 수익률을 나열하기보다 계약이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사건의 전개와 원인을 살피고, 관련 제도에서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 피해구제에서는 24 시간 안에 할 일과 준비 서류, 신청 기한, 무료 도움 창구까지 안내한다. 사건 지도와 통합검색은 과거의 금융사고가 오늘 권유받은 상품과 어떻게 닮았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의 순서입니다. 안전한 금융생활은 큰 수익을 얻는 데서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위험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박종길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장

개인부터 학교·군·금융회사까지 함께 쓰는 금융교육 기반

넥서스 금융 브리핑은 일반 국민이 혼자 읽는 사이트에 머물지 않는다. 회원가입과 결제 없이 공개하고, 주제별 글을 같은 구조로 축적해 학교·대학, 군, 금융회사, 소비자단체와 상담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금융교육과 소비자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와 대학에서는 경제·사회·진로·생활교육에서 금융계약과 실제 사건을 함께 다루는 사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군에서는 장병의 급여 관리, 신용, 대출, 전자금융사기 예방과 사회진출 준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신입·영업직원 교육, 금융소비자보호, 민원·분쟁 예방과 내부통제 교육에서 상품의 구조와 실제 사고를 연결해 볼 수 있다. 소비자단체와 상담기관은 상담 초기 사실관계 정리, 피해구제 절차와 기한 확인, 공식 기관 안내로의 연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개인별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 것도 원칙이다. 누구든 동일한 근거를 확인하고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하는 공통의 교육 기반을 지향한다. 연구소는 교육기관과 공익단체가 강의·상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생애주기와 이용자별 금융교육 자료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확성과 독립성을 운영 원칙으로

플랫폼은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 당사자의 주장과 필자의 해석을 구분한다. 숫자·조문·기한은 확인 가능한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 자료로 대조하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심지어 않는다. 금융상품은 판매 순위나 현재 조건을 비교하지 않고 계약 구조와 위험, 예금자보호 여부, 중도 종료와 손실 가능성을 같은 순서로 설명한다.

편집·작성·정정 원칙도 사이트에 공개했다. 제도 변경이나 새로운 판결·제재가 나오면 기준일과 근거를 다시 확인해 갱신하고, 사실 오류와 당사자 공식 입장에 대한 정정 요청·자료 제보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모든 글은 독자가 오늘 확인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 금융생활의 변화와 함께 자라는 플랫폼

연구소는 앞으로 새 금융상품과 사건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법령·제도·피해구제 절차의 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고령층, 청년, 군 장병, 사회초년생, 자영업자 등 생애주기와 상황별 교육자료를 넓히고, 학교·금융회사·소비자단체 등 현장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명 방식과 활용 도구도 개선한다.

박종길 소장은 “금융사고를 모두 막을 수는 없지만, 서명하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는 문장과 피해가 발생한 다음 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절차는 만들 수 있다”며 “감독 현장의 경험을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꾸고, 금융교육과 소비자보호 현장에서 오래 쓰이는 공공 기반으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 끝 -

넥서스 금융 브리핑 한눈에 보기

상품을 이해하고, 사건에서 배우고, 제도를 확인한 뒤, 피해구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공익 금융지식 플랫폼

네 영역을 한 흐름으로 읽습니다

영역	무엇을 알 수 있나	이럴 때 활용
금융상품	계약의 성격, 돈의 흐름, 비용, 위험, 중도 종료와 보호 여부	가입 전 상품의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확인할 때
금융사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가능했는지, 같은 위험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새로운 투자 제안이나 금융사고의 징후를 판단할 때
금융제도	규칙의 취지와 적용, 실제 작동 방식과 남은 과제	내 계약과 피해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찾을 때
피해구제	즉시 할 일, 증거, 신청 절차, 기한, 비용과 무료 도움 창구	피해가 발생했거나 권리행사 기한이 공금할 때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이용자·기관	활용 예시
일반 국민·가정	예금·대출·보험·투자·카드 계약 전 확인, 금융사기 예방, 피해 발생 후 대응 순서 점검
학교·대학	경제·사회·진로·생활교육의 금융 사례, 토론·과제·프로젝트 수업,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군·공공교육기관	장병 급여·신용관리, 대출과 전자금융사기 예방, 전역 전 사회진출 금융교육
금융회사	신입·영업직원 교육, 금융소비자보호, 민원·분쟁 예방, 내부통제와 사고사례 교육
소비자단체·상담기관	상담 초기 사실관계 정리, 피해구제 절차·기한 확인, 공식 기관과 무료 지원 창구 안내
언론·연구자·도서관	금융사건의 배경과 제도 근거 확인, 공공 금융정보 큐레이션, 시민 대상 참고자료

이용 안내

사이트의 글은 금융교육·참고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추천이나 개인별 투자·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 <https://nexusfmi.com/> 편집·작성·정정 원칙 <https://nexusfmi.com/policy>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및 연구소장 개요

구분	내용
기관명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사업개시일	2026 년 8 월 10 일
연구소장	박종길
공익사업	넥서스 금융 브리핑 운영, 금융·경영 연구출판
서비스사업	금융·경영 컨설팅, 금융·경영 교육서비스
설립 취지	감독 현장의 경험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익 지식과 조직의 책임 있는 판단으로 연결

박종길 연구소장

박종길 연구소장은 금융감독원에서 1993 년부터 2025 년 7 월까지 33 년간 기업공시, 자본시장 감독·조사, 금융상품 분석과 금융투자업 감독을 수행했다. 기업공시국장, 금융상품분석국장·실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기업공시·금융상품·불공정거래·지배구조·내부통제를 주요 전문 영역으로 삼고 있다.

금융감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플랫폼의 검증 기준과 국민의 금융 판단을 돕는 콘텐츠로 전환하고, 금융소비자와 조직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취재 및 자료 문의

담당	박종길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장
연락처	010-9166-4667
전자우편	contact@nexusfmi.com